

# 서울시립미술관 600억 투입 리모델링... 대표 문화공간 탈바꿈

(서소문 본관)

2022년 공사시작 2024년 완공예정  
건물 단열·방수 공사 등 대대적 정비  
서울시, 공사와 함께 건물증축 검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이 2년에 걸쳐 리모델링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20년이 돼 노후한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2024년 자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물 단열·방수 공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선다. 신규 본관 건립도 병행해 서울시 대표 공공미술관으로서 랜드마크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국제규격의 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건물 단열 및 공조 시스템 미비로 해외 고가작품 전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8년 12월 한묵전에서는 1층 전시장 내 단열이 잘 되지 않아 결로현상이 일어나 전시작품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서소문본관에 설치된 수동 공조 시스템은 미술관 전용이 아닌 범용 공조기로 정상적인 온습도 제어가 어려우며 내구연한 9년



지난해 7월 12일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한 시민들이 '데이비드 호크니 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을 초과해 교체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전시장 천장 단열재가 오래돼 떨어지거나 결로로 인해 건물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생겨 추락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시는 건물의 단열·방수 기능을 개선하고 자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하 기계실, 지붕 상부, 천장 시

설, 전력 간선 등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전시장 복구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면 미술관 시설 유지 관리비를 매년 10~15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시설 유지 관리비는 2018년 15억2000만원, 2019년 15억9000만원, 올해 17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비

를 연간 4~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건물 증축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최근 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국제 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 서소문본관의 편의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8%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매년 불만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후 건립된 미술관의 아트숍 등 편의시설은 건물 연면적의 30~40%에 달한다. 서소문본관의 관람객수는 2017년 116만명, 2018년 63만명, 2019년 114만명으로 최근 3년 평균 연간 97만명 수준이다.

시는 건물 증축을 위해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잔여 용적률이 없어 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해 공개공지 조성·제공시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덕수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 포함된 전시동은 양각(시선이 지평면과 만드는 각) 제한 규정에 따라 수평 증축하고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사무동은 수직 증축할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이내에 짓는 건물은 문화재 외곽경계의 일정한 높이에서 27도 높이로 올라다닐 때 그 아래 높이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양각 27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증·개축 공사비를 최소 395억원에서 최대 579억원으로 예상했다. 전시동만 리모델링할 경우 예상 소요 예산은 395억원이고 전시동 리모델링 및 수평 증축, 사무동 재건축 공사를 모두 시행하면 57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시동 리모델링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서소문본관 인근에 있는 등기소와 어린이집 부지의 편입 가능성을 고려해 공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특별자금 2000억

중소·소상공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등 모두 20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 등 총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어서 긴급히 1천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됐다.

지난 12~1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중소기업은 62건에 203억원(평균 업체당 3억3천만원), 소상공인은 18건에 8억6000만원(평균 업체당 5000만원)을 신청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우리 경제가 중국 경기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 생산 차질 등 큰 피해가 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 신청하거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성동~노원 잇는 도시철도, 2025년 개통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총 연장 13.4km에 16개 정거장  
금호산업, 호반산업 등 시행  
지역균형 발전 큰 기여 기대

서울시는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3.4km에 16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60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2025년 개통한다. 민간투자사업인 동북선 도시철도의 총 투자비는 1조5963억원이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시작해 경동시장, 고려대, 미아사거리, 월계, 하계, 은행사거리를 거쳐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한다.

왕십리역(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



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기존 8개 노선, 7개 역에서 환승할 수 있다.

공사는 1~4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금호산업, 호반산업,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대명건설이 맡아 시행한

다. 현대로템은 신호, 통신, 궤도 등 전 구간 시스템 분야를 담당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로부터 14일 사업 착수계를 제출받았다.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지장물 이설, 부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가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북선은 기존 노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북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LED조명으로 교체

서울시설공단은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바꾸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노후화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새 LED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바꾼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터널 내 조명 개선을 통해 전기료를 절약하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기간 정릉터널 성산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도로터널 현장점검 모습. /서울시설공단

진행된다.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는 성산 방향 3개 차선 중 3차선(우측 1개 차선)을 통제한다. 3월 10일부터 30일까지는 성산 방향 3개 차선 중 1차선(좌측 1개 차선)을 통제해 조명 교체 작업을 벌인다. 교통 통제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대리·퀵기사에 마스크 나눔

서울시는 17일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마스크 75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크 제공 장소는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배달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시내 5곳의 '휴(休)서울노동자쉼터'(서초, 북창, 합정, 상암, 녹번)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개소(종로구 율곡로, 송파구 중대로) ▲노동자복지

관 2개소(은평구 통일로, 영등포구 국회대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등이다.

이외에도 청계천변에 위치한 노동복지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도 노동자와 방문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다.

시는 2월 초부터 전태일기념관 등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 600여개를 비치해 감염증 예

방에 힘쓰고 있다. 장시간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이동 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쉼터 5곳에 대해선 특별 방역도 완료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연중 개최하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도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 예방책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